

# 역사는 스스로 길을 찾는다 독후감

불나비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혁명가의 삶은 잘 알려져 있다. 타협하지 않는 혁명가로서 언제나 임해왔고, 결국 혁명과 함께 죽은 그녀의 삶은 우리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준다. 하지만 그녀의 사상은 그녀의 삶에 비교하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론과 그녀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녀가 진정으로 어떤 사상을 추구했는지 다루고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상의 핵심은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통일이다.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경직되어있는 교조적 자세, 실천을 이론으로부터 분리하는 기회주의적 자세 모두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이론은 현실로부터 괴리된 것이 아닌 현실을 분석하며 발전했고, 그녀의 실천 또한 혁명적 이론과 괴리되지 않았다. 제 2인터내셔널 수정주의 논쟁에서 이런 변증법적 분석의 두각이 드러난다. 이런 수정주의 논쟁이 일어난 원인이 2인터의 맑스주의 혁명적 이론과 개량적 실천의 모순에서 분열이 발생한 것이라 주장한다. 베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수정주의와의 논쟁에서 그녀는 <사회개혁이나 혁명이나>를 통해 베른슈타인의 논리를 하나하나 논파하고 개량은 혁명의 학교임을 설파한다.

또 다른 그녀의 대표 서적, <자본축적론>을 통해 제국주의에 대한 분석을 펼친다. 이 과정에서 맑스의 재생산표식을 수정하여 제국주의를 설명한다. 요약하자면, 자본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기에, 이 잉여를 비자본주의의 국가 또는 췌자본주의의 국가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에는 이럴 필요가 없었지만, 자본주의가 지배적 체제가 될수록 이런 모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져 식민주의가 체제의 지속적 성장 가동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이론은 당시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오토 바우어와 부하린의 비판이 가장 날카로웠는데, 부하린은 로자가 자본가들이 투자를 지속하려면 자본주의 외부에 일종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을 비판하며 이렇게 썼다.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을 위한 생산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자본가계급 전체가 이익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축적이 이뤄질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해 보이는 축적을 위한 축적이 자본주의 생산의 목적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 체제의 원동력이 인간의 필요 충족이나 자본가의 욕구 충족도 아니고 체제의 동역학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다만 기존의 자본 축적이 이뤄지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본이 투입되면 이윤율이 일시적으로 회복되고 경기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건 사실이다. 이렇듯, <자본축적론>은 지적하는 바가 확실하지만 오류 또한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레닌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이든, 로자의 <자본축적론>에서의 제국주의이든,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발전에서 필연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당시의 자본주의에서의 평화라는 공상적인 어구를 외치며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기회주의의 조류들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협약이나 연합이 아닌 오직 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해야 평화가 달성된다는 것이다. 당시의 기회주의의 조류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조국방위주의를 외치며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쟁터로 내몰았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누가 옳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녀의 사상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자발성이다.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매개체로서 프롤레타리아 대중은 계급투쟁 속에서 스스로 강화하며 혁명적으로 각성하게 된다.

"역사적 경험이 그들의 유일한 스승이며, 자기해방의 길은 끝없는 고난과 무수한 잘못에서 스스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가차 없는 자기비판, 사물의 근본을 추구하는 자기비판은 노동자운동의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불"이기에, 프롤레타리아 대중은 끝없는 실천과 자기비판을 계속하며 자신을 해방할 능력을 갖춰야 함이 사회주의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로자는 소수 혁명가의 조직이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의 주체인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수행함을 확실히 했다. 그렇다고 그녀가 당이나 조직의 역할을 무시했던 건 아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당은 대중에 있어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운동의 가장 앞에 서며 대중의 각성을 촉진하고 교육하는 역할이었다. 그녀는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었으며, 그들을 배반하는 자들을 가차 없이 비판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상은 우리에게 교리와도 같은가? 그렇지 않다. 진정한 맑스주의자라면, 현재를 반영해 변증법적으로 그녀의 사상을 발전시켜야지, 교조적으로 그녀(아니면 다른 선대 맑스주의자이든)가 쓴 글을 엄불 외우듯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서 그녀의 사상이 유효한가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녀가 지키던 국제주의 원칙, 운동에서 대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 그리고 유물론적 변증법의 자세는 현시대에도 유효하다. 누군가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대중을 자신이 구원해야 할 대상이라 여기지만, 사실 그 반대로 대중이 혁명가를 구원한다. 각성한 대중이 없다면 혁명도 없고, 혁명가도 없다. 오히려 승리와 패배가 반복되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각성한 대중이 혁명의 전제조건이자 자기해방의 주체로서 진정한 혁명가이다.

사회 모순이 격화되며 대중운동이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다. 사회주의자의 역할은 이런 운동과 결합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혁명적 각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종결을 고하자!